박수근미술상

홍경한의 시시일각

한국 현대미술 100년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서민화가, 질곡의 시대를 힘겹게 걷던 이들을 품에 안았던 작가, 어려운 창작환경에 굴하지 않은 채 삶과 예술의 긴밀함을 회화로 승화시킨 예술가,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린 화가.

박수근을 따라다니는 여러 수식어들은 '국민화가'라는 오늘날의 칭송을 어색하지 않도록 한다. 이중섭, 김환기와 더불어 한국미술 3대 거목이라는 후대의 평가는 그의 존재감을 더욱 눈부시게 만든다.

그의 그런 예술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강원도 양구군은 지난 2016년 '박수근미술상'을 제정했다. 양구에서 태어나 성장해 그곳 양지바른 곳에 묻힌 박수근 화백의 독자적인 양식과 삶의 리얼리티를 잇는 동시대작가를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상(賞)이다.

제1회 수상자는 전남 보성 출신인 황재형 작가였다. 그는 노동으로 실현된 인간화와 삶의 진실을 향한 인간애 물씬한 작품으로 화단의 주목을 받았다. 직접 광부로써 일하는 등, 실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형성은 진득한 인간의 이야기를 비롯해 시대가 변해도 민중의 본질, 땀의 무게는 변하지 않음을 읽게 한다.

2017년 제2회 수상자는 김진열 작가에게 돌아갔다. 김작가는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인간과 자연에 대한 애정을 특유의 거칠고 투박한 기법 아래 구현해왔다. 그는 궁핍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상과 수백 년의 풍상을 겪어내며 자존하는 나무 등의 이미지를 통해 매혹적이면서도 뜨거운 생명력을 보여줬다.

그리고 올해 박수근미술상을 수상한 작가는 이재삼이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자연을 독창적인 관점아래 감동적으로 조형화한 박수근처럼 이재삼 작가 역시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양식을 구축해 온 작가로 꼽힌다.

화가 박수근 관련 이론 전문가인 박수근미술관 엄선미 관장은 "그가 주로 그린 자연은 일상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목탄의 투박함과 정겨움이 엉긴 검은 세계는 외적인 사실주의를 넘어 형용할 수 없는 깊이를 보여준다"고 평했다. 사물의 근원인 물과 바람, 달과 이슬, 빛과 기온이 교차하는 그림, 우리네 현실계를 짚고 넘는 상징적인 세계로써의 그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재삼 작가는 목탄을 재료로 일상의 자연을 깊고 깊은 검은 공간 속 거친 듯 시적으로 담아 왔다. 소나무와 대나무, 옥수수 밭과 매화, 그리고 폭포의 정경들은 언뜻 가시적인 것이 전부인 듯싶지만, 그 내부엔 음습하나 한 없이 침잠하는 존재들, 역사와 문명의 동력이 되어준 자연환경, 오로지 그림 하나로 이겨내려 한 삶의 투쟁이 은은한 달빛처럼 배어 있다.

박수근미술상은 여타 미술상과 결이 다르다. 정체성이 명료하다. 보은과 공로, 상 자체가 하나의 기획인 상이라기 보단 박수근이라는 인간과 부합해야 하고 그가 지닌 문화예술적 맥락에서의 가치와 의미에 근접해야 한다.

박수근미술상을 제정하며 한 위대한 작가의 역사를 집중 조명해온 전창범 양구군수는 "불굴의 의지로 현실과 맞서면서 그림에 대한 집념을 잃지 않은 예술가, 자연과 동질한 정서를 내재한 사람들 간 호흡 속에서 작가가 직접 체득한 그 무언가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며 "황재형이 그랬고 김진열이 그랬으며 이재삼이 그렇다"고 말했다. /미술칼럼가·칼럼니스트

신세계푸드, 한돈 삼겹살로 평창 패럴림픽 성공 기원

신세계푸드는 지난 3일 삼겹살데이를 맞아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운영인력에게 한돈 삼겹살을 활용한 메뉴를 제공했다고 4일 밝혔다. 평창 패럴림픽 선수촌,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 올림픽 플라자, 메인프레스센터(MPC), 국제방송센터(IBC) 등 운영인력 식당 5곳에서 진행된 행사는 이번 행사는 패럴림픽 케이터링을 맡은 신세계푸드가 대회의 성공을 위해 수고하는 자원봉사자,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 운영인력 3000여명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신세계푸드

스타벅스, 파트너 1만3천명 돌파 기념 이벤트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오는 5일 파트너(임직원)수 1만3000명 돌파를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타벅스는 이날 전국 매장에서 제조 음료와 푸드를 모두 포함해 1만3000원 이상 구매하는 선착순 1만3000명에게 스타벅스 마그넷 세트를 증정한다. 마그넷 세트는 음료와 머그, 매장, 로고 등 다양한 디자인의 마그넷으로 구성했다. /스타벅스

가해자 과보호하는 '명예훼손죄'

기자 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누구를 위한 법인가.

문화계에서 시작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운동이 사회 곳곳으로 퍼진 가운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상대방의 행위가 허위가 아닌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형법 제307조 1항은 허위 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최대 2년 징역이나 5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폭로가 사실이어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다.

성폭력을 저지른 것이 명백한 가해자에게 법이 유리하게 적용되고, 피해자를 오히려 피의자로 둔갑시키니 이쯤되면 '피해자를 협박하는 도구'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즉 명예훼손죄 때문에 피해자는 더더욱 입을 다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이에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형법 제307조 사식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처벌은 당연하지만 사실이 명예훼손이 된다는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이어 'UN인권위원회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했다.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이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명예훼손죄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개인의 '인격' 및 '사생활'이 보호돼야 한다는 반론이다. 그렇다면 성폭력 가해자들의 명예와 은밀한 사생활까지 과보호할 필요가 있을까.

법에 의해 피해자들이 주저하고, 함구하는 일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한 때다. /tree6834@metroseoul.co.kr

바르다김선생, 동두천 아동센터서 '바른 동행' 진행

죠스푸드는 바르다김선생이 지난달 28일 동두천 아동센터에서 '바른 동행'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바른 동행은 바르다김선생 임직원과 가족점주들이 함께 나서 소외 계층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최근 공정위 주재로 가족점주들의 단체인 상생협의회와 함께 한 상생 협약을 기념하고 진정한 상생과 협력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됐다. /죠스푸드

인사

◆ **원자력안전위원회** ◇ 과장급 승진 △ 방재환경과장 김성길 ◇ 과장급 전보 △ 안전기준과장 이재성 △ 원자력안전과장 오맹호 △ 원자력심사과장 채희연 △ 방사선안전과장 신종한 △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한정호 △ 원자력안보팀장 강청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공무원단 승진 △식품기준기획관 한상배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이승용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박희옥

◆ **코스콤** ◇임원/본부장 △강신 전무이사(금융사업본부장) △신재룡 전무(자본시장본부장) △이재규 상무(인증사업단장) △석동한 상무(미래성장본부장) △엄재욱 상무(경영전략본부장) △유종훈 본부장(U2L사업단장) △김학구 본부장(정보사업단장) △이순모 본부장(기술연구소장) ◇부서장 〈신임〉 △데이터센터부 김태민 △품질관리실 황석둔 △대외협력부 김성환 △정보사업실 한강덕 △인증사업실 김성덕 △비서실 문용진 ◇팀장 〈신임〉 △구매업무팀 김용섭 △인력개발팀 한상민 △대외협력팀 박희성 △홍보팀 방순태 △매체서비스팀 김수연 △인프라운영기획팀 김한성 △BCP팀 차찬호 △미래사업팀 김완성 △정보업무팀 박미란 △인증업무2팀 김우현 〈전보〉 △전략기획팀 이창환 △법무팀 이주원 △경영정보팀 류호증 △인사팀 정선구 △사회공헌팀 남영창 △시장정책지원팀 정홍배 △시장사업지원팀 라희정 △기반기술팀 정원태 △부산운영팀 박범용 △매매체결개발팀 옥주환 △청산결제개발팀 임장혁 △금융기획1팀 김영선 △금융기획2팀 최병진 △해외사업팀 유태빈 △금융영업1팀 박현구 △금융영업2팀 김응석 △금융영업3팀 유석 △PB금융상품팀 송태성 △금융채널팀 문경달 △금융투자협회팀 장일준 △서비스인프라팀 신경호 △시스템인프라팀 박희철 △IT리스크관리팀 문성은 △혁신기술팀 김흥재 △핀테크플랫폼팀 박재성 △FINSET벤처팀 조영민 △블록체인사업팀 김미선 △블록체인기술팀 신구태 △클라우드사업팀 이주화 △클라우드서비스팀 김성철 △정보서비스팀 김진우 △인증업무1팀 박흥석 △감사팀 김광국

부음

▲ 남철호씨 별세, 남선(불교방송 선임기자)씨 부친상 = 4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 발인 6일 오전 9시, 02-3010-2000

▲김선실 목사 별세, 이영혜(뉴저지 베다니교회 권사) 영범(뉴저지 성은장로교회 장로) 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영찬(뉴저지 베다니교회 파송 케냐 선교사) 영석(안수집사)씨 모친상= 3일 미국 뉴저지 베다니 감리교회, 발인 6일 오전 10시(현지시간).

한국콜마 제약부문 신임사장에 이호경

콜마파마 대표에 우경명 선임

한국콜마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제약부문 신임사장에 이호경 콜마파마 대표이사 사장(사진)을 선임한다고 4일 밝혔다.

콜마파마 대표는 우경명 한국콜마 제약부문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해 맡게 된다.

이호경 사장은 2015년부터 콜마파마 대표를 맡아 콜마파마를 연 매출 520억(2017년 기준)의 중견 제약사로 성장시킨 수장이다.

그는 대웅제약 전무, 부사장을 거쳐 2013년 한국콜마 제약부문 부사장으로 입사한 뒤 2015년부터 콜마파마 대표이사 사장을 맡아왔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3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제3907호 / 0001호